

탄허·한암 스님 모두 겸수와 원융 강조

탄허 스님 탄신 100주년 기념 세미나서 한암 스님과의 관계 조명

한국불교 근대사의 태두 탄허(呑虛, 1913~1983) 스님에게 스승 한암(漢岩, 1876~1951) 스님은 '지음'(知音)이었다.

6세 때 사서삼경 전 과정을 마칠 정도로 뛰어났던 탄허 스님은 스무 살 되던 해인 1932년 당대의 선지식으로 이름을 휘날리던 한암 스님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냈다. 서로를 알아본 두 사람은 천리 길이 멀다하고 3년간 20여 통을 주고받았다. 1934년 10월, 마침내 탄허 스님은 오대산 상원사로 입산해 한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자의 길을 선택했다.

탄허 스님 탄신 100주년을 맞아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용표)와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가 4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공동개최한 기념세미나에서는 탄허 스님과 한암 스님을 비교하고 한국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는 시도가 있었다.

한암 선(禪), 탄허 교(敎)에 치중

윤창화 민족사 대표는 '한암(漢岩)과 탄허(呑虛)의 동이(同異)적 고찰'에서 "한암 스님과 탄허 스님의 다른 점, 곧 특성이란 한다면 한암은 선(禪)에, 탄허는 교학(敎學)에 치중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한암은 금강산 신계사 강원에 있다가 보조지눌의 <수심결>에서 느낀 바가 있어 경허를 찾아가 선승의 길을 걸었고, 그의 제자 탄허는 반대로 선원인 상원사에 입산해 훗날 교학의 길을 걷게 됐다"고 소개했다.

둘 다 선교겸수(禪敎兼修) 강조
윤 대표는 표면적 양상과는 다르게 두 스님 모두 겸수(兼修)와 원융사상에 기반한 융합을 강조, 실천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표는 "먼저 두 스님은 모두 유학자 출신으로 입산한 점이 같다"며 "두 스님은 모두 선(禪)의 입장에서 선교겸수(禪敎兼修), 선교융합(禪敎融合)을 시도, 실천했다. 당송시대 종립에서 장경각과 그 관리자인 장주(藏主)를 뒤 수행납자들에게 경전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또 "탄허는 보조지눌의 수행법과 사상에 영향을 받은 바가 큰데 이는 한암의 선 사상과 일맥상통하다. 그들의 선사상, 수행은 간화선, 특히 보조지눌의 간화결의론에 의거한 간화선으로 경전적, 교학적 바탕은 <화엄경>과 이통현의 <화엄론>에 의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탄허 스님의 인재양성 정신이어야

윤 대표는 탄허 스님의 업적을 평가하고 스님의 인재양성 정신을 이어야 한다고 발제를 끝맺었다.

먼저 윤 대표는 "탄허는 전통강원의 교과목인 사미과, 사점과(사장, 도서, 절요, 선요), 사교과(능엄경, 기신론, 금강경, 원각경) 등을 비롯해 대교과인 화엄경과 주석서인 청량장판의 화엄경소초, 이통현의 화엄론까지 완역한 행했으며, 선어록인 육조단경과 보조범어도



윤창화 민족사 대표(사진 왼쪽서 두번째)가 세미나에서 한암 스님과 탄허 스님을 비교 발제하고 있다.

번역·간행했다"며 "이는 근현대 불교사에서 개인이 행한 역경불사로는 최대의 업적"이라고 말했다.

윤 대표는 이어 "탄허는 오대산 월정사와 삼척 영은사 등에 수도원을 개설해 교육에도 적지 않은 심혈을 기울였다. 이와 같이 교육·역경에 매진했던 것은 인재 양성을 통해 불교, 더 나아가 한국사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함이었다"고 말했다.

인재양성 정신 이면에 민족정신이

김광식 동국대 연구교수는 이날 탄허 스님의 이런 인재양성 정신 이면에는 일제하의 시대인식과 독립운동가였던 부친의 영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탄허의 시대인식과 종교관 고

찰"을 통해 "탄허의 시대인식은 일제 하 독립 운동가였던 부친의 민족의식이 영향을 미쳤다"며 "그 결과 그의 종교관이 개인, 사찰, 종단 차원에서 사회, 국가, 민족, 동양, 인류 등으로 확대됐으며 오대산수도원, 영은사수도원을 통한 인재양성, 역경 등으로 발현됐다고 주장했다.

고영섭 동국대 교수는 2주제인 '呑虛宅成의 생애와 사상 - 한국불교사적 지위와 한국 불학사적 위상'에서 "탄허는 한국불교사에서 불도유 상교를 통섭한 진정한 교육자일뿐만 아니라 한국불학사에서 화엄선의 계승자"라며 "스님의 원융회통 정신은 전통 계승이라는 측면과 함께 다문화 시대와 다종교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탄허를 새롭게 조명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라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왕흥사지 사리장엄구' 보물 지정 예고

문화재청은 4월 25일 '부여 왕흥사지 사리장엄구(夫餘 王興寺址 舍利莊嚴具·사진)'를 보물로 지정 예고 했다.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됐다.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같은

'부여 왕흥사지 사리장엄구'는 부여 왕흥사지의 목탑지 심초석 남쪽 중앙 끝단에 마련된 장방형 사리공 내에서 발견됐으며, 가장 바깥에 청동제의 원통형 사리함을 두고 그 안에 은으로 만든 사리호, 그리고 보다 작은 금제 사리병을 중첩하여 안치한 3종의 봉안방식을 취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국내 사리기

남 '서산 개심사 오방오제위도 및 사직사자도(瑞山 開心寺 五方五帝位圖 및 四直使者圖)' '서산 개심사 제석 범천도 및 팔금강 사위보살도(瑞山 開心寺 帝釋 梵天圖 및 八金剛 四位菩薩圖)' '금강반야경소론 찬요조현록(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을 보물지정했다. 노덕현 기자

학술소식

연등회 문화재 지정 후 첫 학술세미나

연등회보존위원회(위원장 자승)는 연등회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을 기념해 5월 11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향'을 주제로 열리는 학술세미나에서는 홍윤식 불교민속학회 회장의 '연등회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의 의의' 기초발제와 관계전문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연등회의 지정 의의와 발전 방

노덕현 기자

서울대·밝은사람들, 불교상담워크숍

서울대학교학원대 불교와심리연구원(원장 윤희조)과 밝은사람들연구소(소장 박찬욱)는 5월 11~12일 '성질 급한 Type A CEO를 위한 달마훈련'이란 주제로 서울대 지혜원에서 불교상담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에서는 김보경 경북대 명예교수가 달마대사의 '이입사행론'과 삼장삼사리에 임각한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시연한다. (02)890-2854

노덕현 기자

"순교의 심정으로 六비구들 할복"

월탄 스님, 조계종 통합종단 50주년 기념 특강서 회고

'승려 8대원칙' 이 정화의 원동력 교역직 스님부터 학인까지 '경청'

"1960년에 4.19혁명이 발생함으로 인해 이승만 대통령이 추진했던 모든 정책들이 지탄의 대상이 됐습니다. 정화운동 역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신라불교 중흥을 위해 순교를 선택한 이차돈처럼 우리도 한국 불교를 위해 대법원에서 할복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조계종 원로의원 월탄 스님(사진)의 목소리가 일순 격양됐다. '육(六)비구 할복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인만큼 스님은 당시 사건은 왜색불교 청산과 정경비구 회복이라는 시대

과제를 위한 순교였음을, 그만큼 절박했음을 강조했다.

월탄 스님은 4월 26일 동국대 중앙당에서 열린 '통합종단 50주년 기념 특강' 강사로 나서 정화운동 당시의 절박했던 상황을 후학들에게 회고했다.

이날 특강에는 조계종 교육원장 현승 스님, 도산사 주지 선목해사 스님을 비롯한 종단 주요 소임자 스님과 동국대, 중앙승가대, 수덕사, 법주사 학인스님들이 참석해 월탄스님의 강의를 경청했다.

월탄 스님은 정화결사는 일제시대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일제에 대항하고자 한 해운운 스님이 송광사에 '조선 임제종 임시 사무실'을 만들었다. 이게 정화결

사의 시작"이라고 역설했다.

이어진 일제의 사찰령 반포로 한국불교는 위기를 맞았고, 해방 후 이승만 대통령의 '불교유시'로 청정승가로의 회귀에 물꼬가 터졌다는 것이다. 월탄 스님은 "당시 대처승들은 18개 사찰을 독신 비구들에게 내주기로 했지만 실천하지는 않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한 계기가 이승만 대통령의 불교 유시"라고 말했다.

이후 1954년 전국비구승대회부터 십여 년간 이어진 정화운동은 1969년 대법원이 비구측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마무리된다. 월탄 스님은 이 같은 불교 정화의 원동력은 △독신 △삭발의 △수도 △20세 이상 △불주조육 △불법사바라이 △비불구자 △3년 이상 수도 생활자 등 불교정화대책위원회에서 결의한 '승려자 8대 원칙'에 있다고 강조했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정토학회, '관음사상' 학술대회

한국정토학회(회장 성운)는 5월 12일 낙산사 유스호스텔 무설전에서 '관음사상과 신앙의 재조명'이란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동국대 교수 보광 스님의 '관음사상과 신앙

연구', 전남문화재단연구원 이사장 현고 스님의 '낙산사 중창불사에서 관한 연구', 조영록 동국대 명예교수의 '한중 통해 관음도량 낙산과 보타산' 등이 발표된다. (02)581-3138

노덕현 기자

원각불교사상연구, '계율' 학술대회

원각불교사상연구원(원장 권기중)은 5월 12일 천대중 관문사에서 '계율의 성립과 변천'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원각불교사상연구원(원장 권기중)은 5월 12일 천대중 관문사에서 '계율의 성립과 변천'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백도수 동국대 교수의 '초기교단의 계율과 성

노덕현 기자

韓國佛教中興祖 鏡虛禪師門下 釋迦如來正法眼藏 七十六世 萬翁道一大禪師 傳法弟子 建幢式

석가여래로부터 한국불교중흥조 경허선사의 법맥을 이은 만옹당 도일대선사의 전법을 전수받을 대덕큰스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이번 전법을 전수받는 대덕큰스님들은 석가여래정법안장 제77세 한국불교중흥조제5조로 인가 받으셔서 만옹도일문도회 문형제가 되어 법통을 보존하고 법을 전수하는 큰스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 ◆ 일 시 | 불기 2556년 6월 9일(4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
- ◆ 장 소 | 접수 후 개별 통보
- ◆ 자격 조건 | 구족계를 수지한 승려 / 법납 20년 이상 비구, 비구니
- ◆ 접수준비물 | 신청서 1매, 수계첩, 증명사진 1매, 견당비,
- ◆ 신청 우선순위로 법제자 서열등록
- ◆ 접수마감일 | 2012년 5월 23일 오후 5시
- ◆ 견당하실 스님들께 내리는 다섯가지 法物
 - (1) 25조 가사(傳統 上品25條 祖衣 傳衣)
 - (2) 발우(此如來應量器 三輪淸淨具 傳鉢)
 - (3) 법권(鏡虛禪師法脈 韓國佛教中興祖第5祖로 認可)
 - (4) 계보(釋迦如來正法眼藏 祖師原流七十七代 系保)
 - (5) 전법계(歷代相傳之 咐囑法 偈誦)

* 당일 만옹도일문도회 문형제들께서도 증명사로 동참바랍니다.

문의처 / 053)325-5288 팩스 / 053)325-4848
문도회장 / 010-3900-3050 총무 / 011-586-4648

석가여래정법안장 제77세 한국불교중흥조 제5조
만옹당도일 법통보존회 문도회장 **혜강능인** 합장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1기 佛敎儀式(범음·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아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서, 쇠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관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2년 5월 30일까지

◆개강일시 : 매주(화,금) 오후 5시 ~ 6시 30분(1시 30분)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영합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중교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을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